

스톡홀름 시청

스톡홀름 시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을 둘러 보시면서 사진을 촬영하실 수도 있으며, 카메라 플래시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단, 오벌 룸에서는 플래시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 도중 그룹을 이탈하시거나 가구에 앉으시거나 물건을 만지시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모든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휴대폰은 무음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관람 되세요!

스톡홀름 시청은 1911년~1923년에 스웨덴 출신의 건축가인 랑나르 외스토베리가 설계하여 건립되었습니다. 스톡홀름 시청은 국가적 낭만주의 스타일로 시공된 스웨덴의 가장 유명한 건물 중 하나입니다. 건축 당시 랑나르 외스토베리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궁전들에서 영감을 받아 이 건물을 설계 하였으며, 이를 반영하듯 시청사에는 Borgargården과 블루 홀의 두 광장이 있습니다. 시청은 스톡홀름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업무를 위한 공간으로 지어졌으며, 지금도 최초의 용도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사에는 회의와 파티를 위한 행사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축가는 블루 홀의 벽돌 벽을 파란색으로 페인트칠 하고 싶어했지만, 빨간 벽돌이 주는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나서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 홀은 여전히 빨간색이지만, 그 이름은 스웨덴어로 블루 홀을 의미하는 "Blå Hallen"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스톡홀름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이 이름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매년 12월 10일 노벨상 수상 축하 만찬식이 이곳 시청사의 가장 큰 행사장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실제 시상식은 시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블루 홀)에는 10,000개의 파이프와 135개의 스톱을 갖춘 북유럽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회의실은 스톡홀름 시의회 소속인 101명의 의원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 하는 곳입니다. 회의는 방문객들에게도 공개됩니다. 갤러리의 한쪽 벽면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반대쪽에는 언론인들을 위한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페인트로 칠한 빔 천장 앞쪽 부분의 형태는 바이킹 시대의 롱 하우스에서 영감을 얻어 지어진 것입니다.

볼트 오브 헨드레드 는 106미터 높이의 탑의 아래쪽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천장은 100개의 작은 아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인트 조지와 용을 상징하는 카리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탑에 있는 종이 울릴 때, 카리용이 회전하면서 탑



바깥쪽에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볼트 오브 헨드레드의 벽에는 환기를 위해 마련된 큰 구멍이 있습니다.

오벌 룸의 벽은 17세기 말 프랑스 보베에서 제작한 태피스트리로 덮여 있습니다. 태피스트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곳 오벌 룸에서는 플래시를 터뜨려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는 이곳에서 종종 일반인들의 결혼식이 열리기도 합니다.

프린스 갤러리에서는 멜라렌 호수와 스톡홀름 해안의 경관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의 반대쪽에는 프린스 유진이 그린 그림에서 등장하는 문양이 있습니다. 검은 기둥은 휘록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다를 향하고 있는 창가는 노르딕 고전 신화에 등장하는 남녀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부조 작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쓰리 크라운 챔버의 벽은 실크와 비단실로 짠 휘장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한 쪽 벽에는 스톡홀름 경관을 그린 1790년대 유화가 걸려 있으며, 다른 쪽에는 스웨덴 역사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주요 인물들이 나와 있는 오크 캐비닛이 있습니다.

골든 홀의 벽은 에이나르 포르셋이 만든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9세기부터 1920년대까지의 스웨덴 역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림들은 모두 약 1,800만 개의 유리와 금박 모자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멜라렌 호의 여왕", 즉 스톡홀름이 인간으로 의인화되어 왕좌에 앉아 있으며, 그 옆으로 다른 여러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과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 만찬식이 끝난 후에는 항상 이곳 골든 홀에서 무도회를 엽니다.